삶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에 주목

광주비엔날레 눈여겨볼 파빌리온

〈16〉 이이남스튜디오



한국의 전통 한지와 소리가 어우러지고, 거대한 늑골 형태의 선박 구조물은 관람객이 직접 통과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서로 다른 재료와 형식을 통해 단절과 변화, 새로운 생성의 순간을 탐색하는 전시가 마련됐다.

제16회 광주비엔날레 폴란드 파빌리온은 남구 양림동 이이남스튜디오에서 '통과의례'를 오는 15일까지 선보인다.

한강의 소설 '흰'(2016)에서 출발한 이번 전시는 낯선 세계로 나아가는 경험과 기억, 변형에 대한 성찰을 개인의 경험에서 사회와 공동체가 겪는 변화의 문제로 확장한다.

이번 전시는 인류학자 아르놀드 방주네프의 '통과의례' 개념을 바탕으로 단절과 생성, 유예와 출현이 교차하는 경험에 주목하며, 군사적 갈등과 시민사회의 불안, 권위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재부상, 양극화 등 동시대 사회가 직면한 변화의 조건을 살펴본다.



우르슐라 브롤作 '구성'

폴란드 파빌리온 '통과의례'…오는 15일까지





한강의 소설 '흰'(2016)에서 출발한 경험과 기억, 변형에 대한 성찰을 풀어낸 폴란드 파빌리온 '통과의례'가 남구 양림동 이이남스튜디오에서 오는 15일까지 열린다. 사진은 안나 자라드니作 '거리를 둔 몸의 소리'(왼쪽)과 인사이드 잡(우라 루친스카&미하우 크니하우스)作 '바람의 항해자들'

시시각각 변하는 삶의 흐름 속 낯선 공간으로의 '단절-생성·기억-변형' 탐색
바닥과 벽에 흐르는 영상…사운드·이미지·조각적 요소 결합 영성의 세계로

파올리나 올셰프스카가 큐레이팅을 맡았고 알리차 비엘라프스카, 우르슐라 브롤, 아티스트 듀오 인사이드 잡, 박생광, 이수경, 안나 자라드니가 참여했다.

안나 자라드니의 영상 작품에서 시작해 한강의 소설로 이어지는 구성을 선보이는 전시는 사운드와 이미지, 조각적 요소가 어우러진 공간은 과거와 미래 사이의 유예된 상태를 드러낸다.

사운드 아티스트이자 작곡가인 안나 자라드니의 '멀어진 신체의 소리'(2020-2025)는 한국의 전통 한지와 소리를 결합한 몰입형 작품이다.

작가는 소리를 사회적·기술적·문화적 긴장을 인식하는 매체로 활용하며, 개막식에서는 사운드와 신체를 결합한 라이브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알리차 비엘라프스카는 천과 금속, 나무, 도자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장소특정적 설치 작품을 소개한다. 천연 안료로 염색한 실크 직물과 도자 작품을 통해 전환과 변형의 상태를 탐구한다.

전후 폴란드 아방가르드 미술의 주요 인물인 우르슐라 브롤은 예술과 영성, 내면 경험의 관계를 살펴본다. 수십 년에 걸쳐 제작한 영적 풍경화와 만트라, 기도를 기록한 드로잉을 통해 명상과 불교 전통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우라 루친스카와 미하우 크니하우스로 구성된 아티스트 듀오 '인사이드 잡'은 늑골 형태의 구조물로 이뤄진 선박 모양의 설치 작품을 통해 관람객이 구조물 내부를 직접 이동하며 '통과'라는 개념을 신체적으로 경험하도록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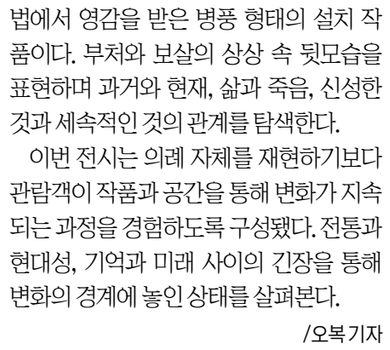
한국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소개된다.

박생광은 한국 전통의 오방색을 활용해 역사와 민속적 이미지를 표현한 작가로 1981년부터 1985년 사이 제작한 회화와 '무속'(1982) 연작을 통해 부처와 굿, 민속 의례의 장면을 보여준다.

이수경의 '이동식 사원' 연작은 2008년부터 이어온 작업으로, 불교 회화와 전통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병풍 형태의 설치 작품이다. 부처와 보살의 상상 속 뒷모습을 표현하며 과거와 현재, 삶과 죽음,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관계를 탐색한다.

이번 전시는 의례 자체를 재현하기보다 관람객이 작품과 공간을 통해 변화가 지속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구성됐다. 전통과 현대성, 기억과 미래 사이의 긴장을 통해 변화의 경계에 놓인 상태를 살펴본다.

/오복 기자



이수경作 '포터블 템플'



파빌리온 벽면에는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 작가가 폴란드 바르샤바에 머물던 시절 집필한 소설 '흰'의 구절이 적혀있다. 사진은 알리차 비엘라프스카作 '겹의 공간'

인사이드 잡(우라 루친스카&미하우 크니하우스)作 '늑골'



